

불화하는 몸들의 상황극장

이은정 (문예미학자)

이민호의 작업은 불안한 듯 배회하는 익명의 신체, 불편함이 느껴질 만큼 노골적으로 화폭을 채운 주름진 살들과 절단된 신체 부위들을 통해서 시대와 불화하는 몸을 담아낸다. 그것들은 더 이상 어떤 개별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기호도 찾아볼 수 없는 벌거벗은 몸들, 그림자 외에는 어떤 것도 갖지 않는 단절된 몸들이다. 프랑스 유학 시절 이민호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강박 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고 주위세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자신과 대면하는 것 외에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시간들을 마주해야 했다.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자유의 시련, 관계의 공백 속에서 이민호는 조르주 바타이유의 'déclasser'라는 단어와 비정형(informe)이라는 개념을 붙들었다. 바타이유는 비정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정형이란 특정한 의미를 제공하는 하나의 형용사가 아니라 각각의 사물이 각자의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세계로부터 이탈하도록(déclasser) 해주는 하나의 용어이다."¹⁾ 'déclasser'는 자격을 취소하는 것, 사회적 지위에서 낙오되는 것,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이민호는 유학생이라는 불안정한 위치에서 일상과 불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기호를 보게 되었으며, 비정형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물의 고유한 형식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후로 그는 에로스나 아름다움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날것으로서의 몸, 그저 현존하는 것 외에는 세계와의 어떤 동거도 거부하는 날것으로서의 몸에 대해서 오랜 시간 천착했다. 그의 작품들은 몸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끈기 있게 고유성들을 벗겨내고, 살갓과 근육들, 움직임과 동작이 스스로 풀려나도록 조건과 상황을 반복적으로 변화시킨다. 아주 미세하게 조건들이 변화되고 그 조건들에 맞추어 몸들이 반응하도록 놓아둔다는 점에서 매번의 작업은 하나의 상황극장이 된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분투는 2차원의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것, 즉 살갓의 색에서 이루어진다. 회화는 부드러움과 따듯함이라는 붓질의 속성을 담고 있지만 사진은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를 만든다. 회화는 몸의 리듬을 따라서 움직이기에 대상보다는 작가 자신에게 충실한 반면, 사진은 정교하게 계산된 설정값에 따라 피사체를 담아내기에 대상 자체만을 기계적으로 지시한다.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들의 대립은 당연히 불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민호는 이 불화를 봉합하기보다는 싸움을 계속하도록 형상에 그대로 노출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날것으로서의 몸이 지니는 어떤 파열을 담아냄으로써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된다. 자기 동일성으로 회귀하지 않는 분열된 형상들은 그래서 사회적 가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리를 박탈당한 어떤 몸들이 존재한다는 것, 아무런 본질도 기입되지 않은 채 다만 바깥을 향해서 열려있는 몸이라는 순전한 현존이 우리 자신으로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고지하게 된다. 이민호는 이 번 전시에 정지돈의 소설집 제목을 차용한 <내가 싸우듯이>라는 제목을 제시했다. 작가 자신과의 싸움, 작업과의 싸움, 과거와의 싸움, 지금과의 싸움, 세계와의 싸움, 무수한 몸들과의 싸움 등, 무한히 열거 가능한 이 싸움은 그가 오랜 시간 싸워 온 작업행위들의 흔적들이다. <Portable Landscape> 시리즈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이민호는 사진작업을 통해 익숙한 장소와 일상적인 사물들을 재구

1) Georges Bataille, "Informe," *Documents* 7 (December, 1929), p.382.

출처] <http://radicalart.info/informe/>

성하고 재배치함으로써 ‘낯설면서도 친숙한’ 공간을 새롭게 열어내는 것들에 오랜 시간을 바쳤다. 한 번의 행위가 그 다음 행위의 원인으로 이어져 하나의 길을 만들 듯이, 사진매체는 그의 주된 장르가 되었으며 낯선 사물들의 공간은 그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들이 되었다. 그러나 공개된 이민호라는 작가의 이면에는 손의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회화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자리를 가지지 못한 소외된 인간에 대한 깊은 동질감이 무거운 음영으로 존재해왔다. 이번 전시는 이민호가 이민호라는 기표에 맞서는 싸움, 그림자를 낮의 세계로 진입시키려는 싸움, 그리고 더 이상 그림자이기를 멈추려는 싸움이다. 또한 그것이 그가 자신과, 작품과,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다.